

파리 오트 쿠튀르의 플리츠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 연구

- 아틀리에 로농(Atelier Lognon)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

최 선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파리의 오트 쿠튀르 플리츠(haute couture pleats) 공방인 아틀리에 로농(Atelier Lognon)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8점의 디자인 작품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플리츠의 조형성을 살펴보고, 아틀리에 로농의 수공예 플리츠를 이용한 패션디자인에서 플리츠의 미적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새로운 플리츠 기법을 통하여 참신성과 고부가가치성을 지닌 패션디자인 개발에 영감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작품 분석 결과, 플리츠가 지니는 반복, 견고, 응축이라는 조형성과 함께 반복에 따른 미적 특성은 통일성과 방향성, 견고에 의한 미적 특성은 규범성과 역동성, 응축에 의한 미적 특성은 공간성과 평면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된 독창적인 플리츠 기법이 패션디자인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파리 오트 쿠튀르, 아틀리에 로농, 핸드플리츠, 패션디자인 개발

I. 서론

다음의 수석 디자이너 라프 시몬즈(Raf Simons)는 2013 F/W 시즌 쿠튀르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오트 쿠튀르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가 였다’¹⁾고 한다. 현대의 하이패션이 예전과 같은 스타일 선도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트 쿠튀르는 여전히 패션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이다.

파리의 오트 쿠튀르는 소재에 관련된 숙련된 수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의류산업을 일으킨 대표적인 예이다. 파리의 오트 쿠튀르는 1911년 오트 쿠튀르 조합(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이 처음 설립된 이래 뉴욕의 세계적인 성공에 힘입어 1940년대 말 106개의 회원사를²⁾ 보유할 정도로 세계 패션계에 미친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기성복 산업의 발달과 뉴욕, 런던, 밀라노 등 새로운 패션의 중심지가 부상하자 오트 쿠튀르에 가입한 업체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 10여개 업체만 남을 정도로 그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파리의 오트 쿠튀르 컬렉션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2년 S/S 시즌에 베르사체(Versace)가 8년간의 공백을 깨고 쿠튀르에 복귀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F/W 컬렉션에서는 경기 침체로 자신의 브랜드를 중단한 채 지난 5년간 프리랜서로 활동해 온 크리스찬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가 스키피아렐리(Schiaparelli)의 수석 디자이너로 복귀하여 18벌의 쿠튀르 의상을 전시 형태로 선보였다. 네덜란드 출신 듀오 디자이너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 역시 2013년 F/W 시즌에 브랜드 론칭 20주년을 맞아 13년 만에 오트 쿠튀르 컬렉션을 선보였다.³⁾

이러한 파리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고

19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쿠튀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샤넬(Chanel)이다. 현재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브랜드의 혁신성은 최상급의 품질에 있다는 믿음으로,⁴⁾ 1997년 자회사인 파라펙션(Paraffection)을 설립하여 파리의 수공예전통을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후원하는 수공예 공방의 범위를 넓혀가던 샤넬은 2013년에 파리의 유일한 주름 공방인 아뜰리에 로농(Atelier Lognon)을 인수했다. 샤넬은 2013년 F/W 시즌 쿠튀르 컬렉션에서 로농의 수공예 주름기술로 재탄생한 소재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의상들을 선보였다.⁵⁾

본 연구자는 2013년 여름, 미국의 패션 후원기관인 아트 오브 패션(Arts of fashion foundation)에서 주최하는 2013 파리 여름 마스터 클래스(2013 Paris summer Master class)에 공모전 수상자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클래스는 파리에서 4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아뜰리에 로농 외에도 자수 공방인 르사주(Lesage)와의 협업이 주요 과정이었다.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미국, 콜롬비아, 노르웨이,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에서 온 젊은 디자이너 및 학생 7명은 파리의 수공예공방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디자인을 파리 장식미술관(Les Arts Décoratifs)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파리 오트 쿠튀르의 주름 공방인 아뜰리에 로농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패션디자인 분석을 통해 플리즈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참신성과 고부가가치성을 지닌 패션디자인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파리의 수공예 플리즈의 조형성과 미적가치를 통해 패션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플리츠 기법의 유형과 조형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아틀리에 로봉의 역사를 고찰한다.

셋째, 아틀리에 로봉의 핸드 플리츠를 활용하여 의상을 디자인한다.

넷째, 2013년 파리 마스터 클래스의 작품을 통해 나타난 핸드플리츠의 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플리츠의 정의 및 기법, 조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 및 서적의 문헌연구를 선행하였고, 아틀리에 로봉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서적 및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로봉의 핸드 플리츠 기법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2013 파리 마스터 클래스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주름 및 플리츠(pleats)에 대한 고찰

1) 주름 및 플리츠의 정의와 분류

주름은 장식적 기능 뿐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적인 측면과 선의 반복에 의한 독특한 조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고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주름’은 ‘fold’, ‘pleats’, ‘drapery’, ‘gathering’, ‘crinkle’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습(褶)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⁶⁾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살펴본 주름의 정의는 옷의 가닥을 접어서 줄이 지게 한 것, 혹은 종이나 옷감 따위의 구김살이다.⁷⁾ 페어차일드 패션 대사전에서는 주름을 직물에 잡혀진 것으로 다 리미로 다려서 평평하게 늘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보고 있다.⁸⁾ 사전적 정의를 통해 살펴 본 주름은 생성 원인에 따라 인위적인 주름과 자연적인 주름으로 나뉜다. 자연적

인 주름에는 천을 걸치거나 늘어뜨려서 생기는 드레이프나 링클(wrinkle) 등이 포함되며, 플리츠(pleats)는 주로 기능성이나 장식성을 위해 만들어진 직선적인 형태의 인위적인 주름을 일컫는다.⁹⁾ 인위적인 주름에는 플리츠 외에도 턱(tuck)과 개더(gathers)가 있는데 플리츠는 턱에 비해 주름의 반복성이, 개더에 비해서는 주름의 규칙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름은 구김, 드레이프 등 자연적인 형태의 직물의 접힘과 플리츠, 턱, 개더 등 인위적인 주름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보고, 플리츠는 좁은 의미의 주름으로 규칙성과 반복성을 띤 직선적인 형태의 인위적인 주름으로 정의한다.

플리츠는 제작 방법에 따라 크게 핸드 플리츠와 머신 플리츠로 나뉜다. 핸드 플리츠 가공은 천의 주름을 잡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미리 만들어 둔 형지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형지가공법이라고도 부른다.¹⁰⁾ 이것은 미리 주름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두 장의 두꺼운 마분지 사이에 천을 끼우고 그 틀의 형태대로 접은 다음 단단히 고정하여 압력을 가한 후, 고열의 증기를 가하여 주름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핸드 플리츠는 자유롭고 세밀한 주름을 만들거나 재단한 후에 플리츠를 가공할 경우 또는 아래로 갈수록 밑단이 넓어지거나 신체의 형태에 맞는 입체적인 플리츠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또한 손으로 만든 형지를 사용한 주름은 제작자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개성적이며 미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이 가능하므로, 패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핸드플리츠는 오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며, 형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형지의 크기에 따라 디자인의 크기가 제한이 될 수 있다.

머신 플리츠 가공은 전용 기계를 사용하여 원관 그대로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가공법으로 비교적 얇은 두 장의 종이에 천을 끼우고 160℃ 정도의 두 개의 열 로라 사이에 나이프 에지(knife

edge)로 천을 많이 공급하여 평행 주름을 돌려 접는 방법으로 그 후에 증기를 가해 주면 거의 반영구적인 주름이 만들어진다. 주름을 가공하는 기계는 칼 기계와 프레스 기계가 있는데, 칼 기계는 주로 나이프(knife) 플리츠의 형태로 가공되며, 프레스 기계는 외주름, 맞주름 등의 미리 준비된 종이 견본 사이에 원단을 넣어 접은 후 압력을 가하여 고정시키는 기계이다.¹¹⁾

플리츠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플리츠의 유형에 관한 연구로는 이은경(1991)¹²⁾, 이유경(1994)¹³⁾, 신윤미(1997)¹⁴⁾, 손영미, 이수현(2004)¹⁵⁾, 김지영(2004)¹⁶⁾, 고경남(2006)¹⁷⁾, 김경희 (2008)¹⁸⁾, 타오 샤(2012)¹⁹⁾ 등이 있었다. 이은경은 플리츠의 종류를 형태와 실루엣에 따라 분류하고, 형태에 따른 플리츠의 종류에는 나이프/스트레이트(knife/straight), 박스(box), 아코디언/크리스탈(accordion, crystal), 엔지니어드(engineered)를 들고, 실루엣에 따른 플리츠의 유형에는 스트레이트, 킨투어드(contoured), 테이퍼드(tapered) 플리츠를 포함시켰다. 손영미는 플리츠의 유형을 직선적인 것과 비직선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각 플리츠가 사용되는 예와 그 플리츠가 주는 느낌을 설명하였고, 김지영은 주름을 곡선형, 직선형, 혼합형으로 분류한 후, 직선형에 나이프, 박스, 인버티드(inverted), 아코디언, 카트리지(cartridge), 이레귤러(irregular) 플리츠를 포함시켰다. 김경희와 이유경은 주름의 종류를 나이프, 박스, 인버티드, 아코디언으로 나누었으며, 신윤미는 플리츠의 유형을 나이프, 박스, 인버티드, 퍽(tuck), 아코디언, 팬(fan), 언프레스(unpressed), 카트리지, 킥(kick)으로 분류하였다. 타오 샤는 선행연구를 통해 플리츠의 유형과 유형별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이밖에도 패션사전에 나타난 플리츠의 유형을 살펴보면, 페어차일드 패션 대사전에는 박스, 카트리지, 나이프/플랫(flat)/사이드(side), 고데(godet)/파이프오르간(pipe-organ), 인버티드, 킥, 클러스터

(cluster), 박스 플리츠의 일종인 와토(Watteau)플리츠를 들고 있으며²⁰⁾, 패션 큰사전에는 박스, 고데, 나이프, 랜덤(random), 머쉬룸(mushroom), 멕시칸(Mexican), 베니션(Venetian), 선레이(sunray), 선버스트(sunburst), 스티치트(stitched), 아코디언, 언프레스트(unpressed), 엠브렐라(umbrella), 엔벨로프(envelope), 와토, 인버티드, 카트리지, 크리스탈, 클러스터, 퍽(tucked), 파셜(partial)플리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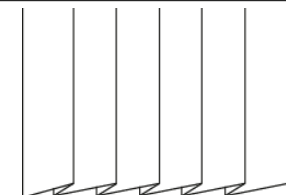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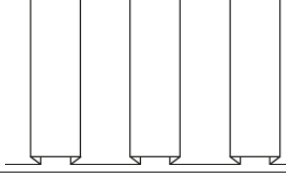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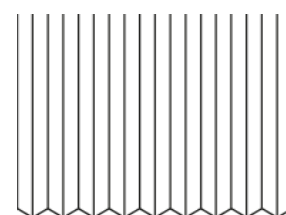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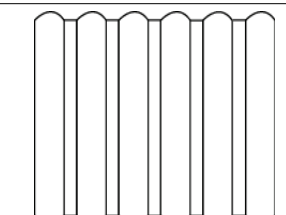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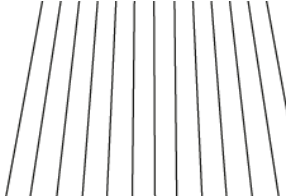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플리츠를 넓은 의미의 주름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좁은 의미의 인위적인 주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는 플리츠를 반복성과 규칙성을 지닌 직선적인 형태의 인위적인 주름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선행연구 세 곳 이상에서 이와 같은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플리츠를 유사한 형태로 분류하고 그 특징과 이미지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중, 형지가 필요 없는 칼 기계만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플리츠는 1번 박스 플리츠와 4번 아코디언 플리츠이며, 형지 없이 손으로 직물을 직접 가공해야 하는 플리츠는 5번 카트리지 플리츠이다. 2번과 3번, 6번 플리츠는 형지를 사용하여 틀을 잡은 후에 프레스 기계를 활용하여 주름의 형태를 고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름의 고정은 프레스 기계 없이도 천과 함께 접은 형지를 나무 판자 사이에 끼워 줄로 맨 후, 고열의 증기로 찌내면 재질에 따라 주름의 형태를 반영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플리츠 외에도 핸드 플리츠의 경우에는 형지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2) 플리츠의 조형성

주름은 직물의 표면에 새로운 조형 감각을 부여하며 직물의 외관을 장식하는 가장 기본적인이며 효과적인 표현기법이자²²⁾, 복식을 디자인하는데

<표 1> 플리츠의 유형과 특징

	플리츠 유형	특징	이미지
1	나이프/플랫/사이드 플리츠 (knife/flat/side pleats)	가장 일반적인 플리츠로 나이프를 배열한 것처럼 한쪽 방향을 향해 접은 주름. 보통 1/2~1인치 간격으로 접음. 명확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줌.	
2	박스 플리츠 (box pleats)	주름 분이 박스 형태로 비교적 폭이 넓음. 주름 부분을 넓게 펴기 전에 약간의 스티치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음. 셔츠 뒷부분, 패치포켓 등에 이용되며 장식적임.	
3	인버티드/엔벨로프 플리츠 (inverted/envelope pleats)	두 개의 주름 모서리가 중앙에서 만나는 맞주름. 박스 플리츠와는 반대로 주름 분이 아래에 놓임. 슬릿과 같은 기능적인 디자인에 활용, 엔벨로프 플리츠는 크기를 키운 인버티드 플리츠.	
4	아코디언/팬/크리스탈/머쉬룸 플리츠 (accordion/fan/crystal/mushroom pleats)	보통 위에서 아래까지 동일한 폭으로 곧게 접은 주름으로써 아코디언의 형태를 띠고 있음. 팬 플리츠라고도 함. 크리스탈 플리츠는 머쉬룸이라고도 하며 아코디언 플리츠 중에 좁은 폭으로 섬세하게 접은 것을 뜻함. 주로 얇은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의 열가소성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머쉬룸 플리츠는 버섯의 갓 안쪽과 모양이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 가장 정교하며 장식적이고 드레시함.	
5	카트리지 플리츠 (cartridge pleats)	명칭은 벨트의 탄대(cartridge loops)모양에서 유래하였고, 보통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둥근 형태의 주름으로 매우 큰 개더 주름과 유사. 통형과 같은 주름이 이어지는 플리츠로 보통 원주가 1~2.5cm 정도의 폭을 가짐.	
6	선버스트/선레이/업브렐러 플리츠 (sunburst/sunray/umbrella pleats)	아코디언 플리츠의 주름을 윗부분은 좁게 하고 밑단으로 갈수록 넓게 만든 것을 뜻함. 선버스트와 선레이는 구름 사이에서 태양광선이 방사상으로 퍼지는 상태와 비슷한데서 붙여진 명칭, 업브렐러 플리츠는 선버스트보다 플리츠의 형태가 큰 것을 말하며, 양산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데서 유래함.	

사용되는 디자인 기법 중 하나로 복식의 조형성을 형성한다. 복식조형의 요소는 크게 형태, 색채, 재

질, 무늬를 들 수 있는데, 복식조형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²³⁾ 김민자

(2004)는 일반적인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사물의 형태는 윤곽형(contour), 내부형(inner form), 구조형(structure)의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복식에서는 이것을 실루엣, 내부형, 구조형으로 표현하는데²⁴⁾, 본 연구는 아직 복식으로 만들기 전의 플리츠 자체의 조형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플리츠의 형태에 따라 윤곽형, 내부형, 구조형으로 플리츠의 조형성을 분류하고자 한다.

윤곽형은 복식에서의 실루엣과 마찬가지로 플리츠가 갖는 전체적인 표면적 형태에서 느껴지는 조형적 유형이다. 내부형은 플리츠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단위의 형태에 의한 유형으로, 최소단위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플리츠의 조형성이 달라진다. 구조형은 플리츠를 구성하는 선과 면이 일정한 규칙에 의한 배열로 이루어진 조형적 유형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에서 플리츠는 좁은 의미의 주름으로 규칙성과 반복성을 띤 직선적인 형태의 인위적인 주름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형태의 플리츠가 갖는 조형성을 위의 형태분류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리츠의 윤곽을 구성하는 조형성의 원리는 반복이다. 반복은 유사한 요소들의 반복적인 배치를 의미하며, 조형에 있어 시각적 통일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²⁵⁾ 로농의 핸드 플리츠는 일정한 형태로 디자인된 하나의 단위를 반복시켜 제작하게 되는데 각각의 단위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반복됨으로써 직물 전체에 통일성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플리츠의 내부형태에 의해 유발되는 조형성은 견고이다. 플리츠는 형지에 직선으로 형태를 표시하고 그 모양대로 접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 후 형태를 고착시켜 만든다. 따라서 플리츠 내부단위의 외곽선은 직선의 형태로 표현되며, 딱딱하고 남성적인 견고의 조형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성은 소재에 따라 인체에 착장되거나 움직임이 발생할 때 유동적으로 변하여 우아함이

나 고전적인 미적 특성을 유발한다.

셋째, 플리츠의 구조적인 조형성은 응축이다. 넓은 면적의 직물을 장식적인 목적이나 기능적인 목적으로 접어서 만드는 플리츠는 직물의 표면적이 줄어든 상태로 표현된다. 이는 플리츠의 디자인에 따라 입체감이나 부피감을 주기도 하고 평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플리츠의 유형에 따른 조형성, 즉 반복, 견고, 응축은 소재와 플리츠의 디자인, 착장이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미적 특성을 보인다.

2. 아틀리에 로농(Atelier Lognon)에 대한 고찰

1) 아틀리에 로농의 역사

아틀리에 로농은 복식에 사용되는 핸드플리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파리 오토 쿠티르의 대표적인 공방이다. 로농은 나폴레옹 3세 시대인 1850년에 에밀리 로농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고, 현재 공방을 책임지고 있는 제라드 로농(Gerard Lognog)까지 4대째 이어져 내려온 수공예 공방이다. 로농은 파리 시내 중심가인 카사노바 거리(rue Casanova)의 17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공방 안으로 들어가면 약 3000개의 마분지로 만든 플리츠 형지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다. 로농은 평범한 옷감을 기품 있게 변신시켜 준다는 자부심을 갖고 현재까지 샤넬,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 등 전통 있는 패션 하우스의 플리츠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공방에서는 현재 5명이 일하고 있는데, 한 때 이곳은 60명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고 한다. 로농은 주로 오토 쿠티르 의상에 사용되는 플리츠를 만들거나 영화, 오페라 의상 및 변호사 가운 등 개인적인 주문을 받고 있다.²⁶⁾ 오랜 세월 동안 주름만을 전문적으로 접어 온 파리의 마지막 주름 공방으로, 보








<그림 1> 아뜰리에 로농의 작업실 광경
(출처: www.arts-of-fashion.org)



통 드레스에 많이 사용되는 방사형의 선버스트 주름과 꽃다발(bouquets of flowers)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핸드플리츠가 유명하다.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주름 스카프도 여기에서 제작된다.

기업으로 이어져 내려온 플리츠 공방은 2013년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13년 여름, 로농은 샤넬의 수공예 공방 조합인 파라펙션(Paraffection)에 합류하였다. 파라펙션은 ‘~을 위하여(for the love of)’의 뜻으로, 파리 패션의 수공예 전통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는 브랜드의 혁신성은 최상급의 품질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리의 유산과 수공예 및 생산기술을 장려하고 보존하기 위해 파라펙션을 설립했다. 파라펙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공방들은 독립적으로 운

영되며 다른 패션 하우스들과 협력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1984년 샤넬은 커스툼 주얼리와 단추 제작자인 데뤼(Desrués)를 매입했으며, 1996년에, 모자 공방인 메종 미셸(Maison Michel)과 깃털과 카멜리아 꽃을 만드는 공방인 르마리에(Lemarie)를 인수했고, 2002년에 자수 공방인 르사쥬(Lesage), 구두 제작자인 마사로(Massaró)를, 2005년에는 주얼리 공방인 구센(Goossens), 2006년엔 종이 꽃을 만드는 기예(Guillet), 2011년에는 역시 자수 공방인 몽테스(Montex)를, 2012년에는 장갑 제작 공방인 꼬스(Causse)와 스코티슈 니트웨어 제작사인 배리(Barrie)를, 2013년에는 플리츠 전문 공방인 아뜰리에 로농을 인수하게 된다. 이것은 곧 아뜰리에 로농의 정통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로농이 제작한 플리츠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표 2> 플리츠 제작 순서

순서	과정 사진	작업 내용
<p>1단계 : 형지제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을 정한다. 2. 마분지를 준비한다. 3. 마분지에 검정색, 빨간색 두 가지 펜으로 튀어나오는 선과 안으로 접힐 선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4. 표시된 선을 따라 끝이 뾰족한 칼로 눌린 자국을 만든다. 5. 자국을 따라 접어서 형지를 완성한다. 6.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같은 크기의 형지를 한 장 더 제작한다.
<p>2단계 : 플리츠 제작</p>		<p>플리츠로 만들 천을 다림질한 후, 같은 크기로 디자인된 두 장의 형지 사이에 위치시킨다. 이 때, 두 형지의 모서리가 정확히 위치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한다.</p>
		<p>넓은 나무판자와 문진 등을 이용하여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잡혀있는 형지를 최대한 평평하게 펼친다.</p>
		<p>두 사람이 누름판과 문진을 밖으로 밀어내며 위, 아래의 형지를 원래모양에 맞게 맞추면서 플리츠를 접어 나간다.</p>
		<p>접은 형지는 플리츠의 형태가 뚜렷하게 잡히도록 양 옆을 긴 나무판자로 댄 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작은 나무조각을 대어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킨다.</p>

순서	과정 사진	작업 내용
		<p>증기 기계에서 80~100° C사이의 온도로 천과 함께 접은 형지를 한 시간 동안 썬다.</p>
		<p>형지가 마르기를 하룻밤 정도 기다린 후에, 플리츠의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형지에서 천을 신중하게 분리시킨다.</p>

2002년 이후, 칼 라거펠트는 매년 하나의 도시를 테마로 정해 수공예 공방의 장인들을 위한 컬렉션을 헌정해 왔다. 지금까지 파리, 뉴욕, 도쿄, 몬테 카를로, 런던,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쇼는 파리 오트 쿠튀르 공방의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작품세계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올해 로농이 합류함으로써 다음 샤넬의 순회 패션쇼에서는 파리 오트 쿠튀르의 전통과 유산이 더욱 풍성하게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 아틀리에 로농의 플리츠 제작 기법

아틀리에 로농의 후계자인 제라드 로농은 현재 69세로 실무에서 물러나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플리츠를 제작하는 사람은 어시스턴트인 카렌(Karen Grigorian)과 로렌스(Laurence Grigorian)이다. 카렌에 따르면 플리츠의 틀인 형지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 달이 걸린다고 한다. 형지를 제작하는 종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두께가 두꺼웠으며, 탄력이 좋아 형지를 한번 만들면 10년에서 15

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형지를 만드는 방법은 예전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먼저 마분지에 자를 사용하여 연필로 선을 그린 후, 빨간색과 검정색의 펜으로 패턴을 따라 선을 긋는다. 빨간색은 비어 있는 곳을 의미하며 검정색은 튀어나오는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첫 번째 장이 완성되면 두 번째 장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을 그리고 한 장식 차례대로 형지의 모양을 접어나간다. 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접는데 이 일이 무척 고되다고 한다. 완성된 형지는 플리츠를 접기 위해 준비된다. 로농에서는 두꺼운 울이나 트위드 재질을 제외하고 실크에서 폴리에스터, 가죽까지 거의 모든 직물로 플리츠를 만들 수 있다.

카렌과 로렌스는 두 장으로 겹쳐 있는 형지를 서로 분리하여 첫 째 장을 먼저 테이블 위에 펼친다. 두꺼운 종이로 단단하게 접혀 있는 형지는 평평하게 퍼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힘을 들어 형지를 잡아당긴 후 넓은 나무판자와 문진으로 눌러 놓고, 종이의 가장자리를 테이블과 함께 조임새로

단단히 고정시켜 형지가 원래 모양대로 접히지 않도록 한다. 펼친 형지 위에 다림질한 천을 위치시키고 두 번째 형지를 위에 올린다. 첫 째 장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종이를 잡아 당겨 고정시키는데 이때 첫 째 장과 모양이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마지막 단계는 가장 까다롭다. 두 명이 형지가 시작되는 부분의 양쪽에 서서 위에 올린 나무판과 문진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두 장의 형지와 천을 플리츠의 도안대로 접어나간다. 천과 함께 접은 형지는 양쪽에 나무 판을 댄 후 끈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킨다. 이것을 그대로 증기기에 넣어 통에 넣어 약 한 시간가량 80~100℃의 증기로 삶는다. 증기를 쏘인 형지는 충분히 마를 때까지 하룻밤을 기다렸다가 이튿날 분리한다.

III. 로농의 플리츠 기법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작품제작

1. 아틀리에 로농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소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트 오브 패션²⁷⁾(Arts of fashion foundation)은 매년 여름과 겨울,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와 학생들에게 파리의 오프 쿠티르를 체험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마스터 클래스로 명명된 수업과정은 4주 동안 약 140여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리의 유명 오프 쿠티르 공방과의 협업으로 의상을 제작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13년 여름에는 ‘언더 프레셔’(Under Pressure)라는 주제로, 파리의 유명 자수 공방인 르 사주와 핸드 플리츠 공방인 로농이 참여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업을 포함하여 미국의 저스틴 추(Justin Chu)와 그레이스 박(Grace Park), 캐나다의 아리엔 가농(Ariane Gagnon), 베네수엘라의 페

트리샤 푸모(Patricia Fumo), 노르웨이의 매근힐드 선드랜드(Magnhild Sundland), 콜로비아의 산티아고 우티마(Santiago Utima) 등 총 7명의 디자인 작업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본 연구자를 포함한 7명은 미국의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비롯한 유명 패션 학교의 학생이거나 현재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이다. 수준 높은 디자인의 도출과 로농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벨기에 출신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인 조 버마이어(Zoe Vermeire)와 아트 오브 패션의 창립자인 나탈리 두세(Natalie Doucet), 필립 후익스(Philippe Houeix)가 디자인 작업에 조력자로 참여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언더 프레셔(under pressure)로 각각의 디자이너들은 자신만의 컨셉을 잡아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전개했으며, 완성된 작품은 파리 장식미술관에 전시되었다.

2. 로농의 플리츠 기법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작품 분석

먼저 각각의 디자인에 표현된 플리츠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본 연구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컨셉을 소개한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의 디자인은 플리츠 기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성과 미적특성 위주로 살펴 보겠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틀리에 로농의 플리츠를 사용하여 두 벌의 의상을 제작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언더 프레셔(Under pressure)로, ‘응축된’, ‘외부에서 압력을 받는’, ‘강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의미를 갖는다. 본인은 외부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내부는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보았다. 외부의 압력이 더해지면 내면의 감정이나 형태는 점점 응축되고, 이러한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결국에는 그 표면을 찢고 내면의 에너지가 외부로 폭발하듯이 발산될 것이다. 작품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압력과 저항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 1>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저항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나이프 플리츠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반복성, 안정감 등을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2>는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으로 내부의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된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로봉만이 만들 수 있는 요철감이 강한 핸드플리츠를 활용하여 울동감을 주고자 했다.

<작품 1>에서는 반복과 견고의 조형성을 통해 좌우대칭적인 플리츠의 형태를 통해 단단하면서 안정적인 규범성의 미적 특성을 살렸다. 또한 앞, 뒤가 다른 디자인으로 앞면은 플리츠와 스모킹 기법을 결합하여 평면성 안에 공간성을 드러내었으며, 뒷면은 반복되는 수직선이 고대 그리스의 신전 기둥을 연상시키면서 고전적인 우아미와 함께 엄격한 규범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2>에서 볼 수 있는 조형성은 반복과 응축으로 볼 수 있다. 열가소성이 있는 폴리에스터를 사용함으로써 풍성한 부피감을 연출하였고, 움직임에 따라 응축된 형태로 세밀하게 접혀있던 플리츠가 확장되면서 공간성과 유동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플리츠의 균일한 형태와 크기가 반복되면서 통일성의 미적 특성이 두드러져 보임을 알 수 있다.

<작품 3>은 선버스트 플리츠가 디자인 모티프로 사용되었다. 로봉은 특히 햇살무늬처럼 퍼져나가는 방사형의 플리츠로 유명한데 이 디자인에서는 적당한 두께감과 무게감이 있는 빨간색의 실크 자카드로 더욱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진 조형성은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선의 방향성이 승고미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작품 4>는 몸판과 동일한 색상의 핸드 플리츠를 몸통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시선을 의상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반복되는 형태의 플리츠는

곡선으로 돌아가는 옷의 구조와 맞물려 선의 방향이 바뀌는 ‘역선’의 효과를 지닌다. ‘역선’은 강력한 움직임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래주의자들이 고안해 낸 양식적 장치로서 물체는 그 자체가 성격과 감정을 지니는데 그 내적 역동성이나 리듬을 전달하기 위해 반복되는 선을 일컫는다. 이러한 역선은 물리적, 정신적 운동감을 지닌다.²⁸⁾ 따라서 <작품 4>의 미적 특성은 방향성과 유동성의 미 특징이 많이 드러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작품 5>에서 플리츠는 다소 단조로운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움직임이 많은 엉덩이와 단에 플리츠를 달아줌으로써 움직임에 따른 유동성의 미적 특성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작품 6>은 실크 쉬폰으로 제작된 핸드플리츠로 열가소성이 없어 형태가 견고하지 않지만 반복적인 선의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고, 이를 통해 통일성의 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실크의 드레이프성과 만나 인체에 착장되었을 때 유동성의 미가 강하게 드러나며, 플리츠가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공간성의 미적 특성도 엿볼 수 있다.

<작품 7>은 가죽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플리츠를 활용한 작품이다. 가죽은 플리츠를 잡기 어려운 소재로 파리 오트 쿠튀르의 전통 있는 플리츠 공방인 로봉에서만 가능하다. 가죽은 두께감이 있어 모서리가 부드러운 플리츠로 완성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두께감이나 무게감이 더해져 견고한 조형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규범성의 미적 특성을 보이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죽은 소재의 특성상 아주 작은 단위의 플리츠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플리츠의 최소 단위가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철감이 큰 플리츠로 완성이 되며 공간성의 미적 특성을 드러낸다.

<작품 8>은 플리츠의 구조를 옷의 형태와 결합하여 디자인한 후, 평면적인 느낌이 강한 플리츠



〈그림 2〉 2013 여름 마스터 클래스의 디자인 작품
(출처: www.arts-of-fashion.org)

를 스커트에 부착하여 중첩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접기라는 구조적인 원리가 옷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천의 부드러운 성질을 거슬러 납작하게 고정시킨 플리츠는 마치 종이와 같은 평면적인 미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3. 로농의 플리츠 기법에 나타난 미적 특성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플리츠의 조형성은 반복, 견고, 응축의 특성을 지니는데 소재와 플리츠의 디자인, 착장이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미적

				통일성과 방향성		
반복						
	<작품 1>의 세부사진	<작품 3>의 세부사진	<작품 4>의 세부사진			

<그림 3> 반복에 의한 통일성과 방향성의 미적 특성
(출처: www.arts-of-fashion.org)

특성을 보인다. 아뜰리에 로농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해낸 플리츠의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반복에 의한 통일성과 방향성

로농의 핸드플리츠를 활용한 디자인에서 플리츠의 반복에 의한 미적 특성은 통일성과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반복은 모든 디자인 원리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으로 직물 전체에 사용될 경우 통일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신체에 착용되면 방향성을 강조하게 되어 감정을 유발한다.

로농은 기계주름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다양한 폭과 깊이를 가진 플리츠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대량생산으로 만드는 머신 플리츠와 동일하게 반복의 원리를 이용하지만 로농의 플리츠는 각각의 디자인에 따라 커스터마이징(customize)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작품 1>의 뒷면에 나타나는 규칙적인 수직선과 <작품 3>의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수직선의 반복은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숭고한 감정을 유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미래주의자들에게 의해 ‘역선(力線)’이란 양식적 장치로 나타난 바 있다.²⁹⁾ <작품 4>는 디자인에 따라 플리츠의

방향이 바뀌면서 직선이 휘거나 꼬이는 등 변형되었는데, 이처럼 직선적인 형태의 플리츠라 할지라도 디자인에 따라 혹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사선이나 곡선의 형태로 변화하여 새로운 조형미가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다.

2) 견고에 의한 규범성과 유동성





로농의 핸드플리츠를 적용한 디자인에서 플리츠의 정서적 조형성인 견고에 의해 나타난 미적 특성은 규범성과 유동성이다. 본 연구에서 플리츠의 정의는 압력이나

고온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태를 만든 주름을 뜻한다. 플리츠의 형태는 직선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직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인 드레이프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로농의 핸드플리츠는 오랜 전통의 엄격한 규칙과 규범에 의해 제작되므로, 이러한 직선적인 경직성은 형태에 안정감을 부여하며 엄격한 균형의미를 나타낸다.

<작품 1>과 <작품 3>은 각각 나이프 플리츠, 선버스트 플리츠로 제작된 것으로 이러한 규범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 7>에서는 가죽이라는 독특한 재질과 로농의 특수한 플리츠기법이 만나 더욱 견고한 규범성을 이끌어내었다고

견고	규범성		유동성	
				
	<작품 1>의 세부사진	<작품 7>의 세부사진	<작품 2>의 세부사진	<작품 5>의 세부사진

<그림 4> 견고에 의한 규범성과 유동성의 미적 특성
(출처: www.arts-of-fashion.org)

응축	공간성		평면성	
				
	<작품 1>의 세부사진	<작품 7>의 세부사진	<작품 6>의 세부사진	<작품 8>의 세부사진

<그림 5> 응축에 의한 공간성과 평면성의 미적 특성
(출처: www.arts-of-fashion.org)

보여진다. 한편 <작품 2>와 <작품 5>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고정되었지만, 플리츠의 단위 크기가 작음으로 인해 인체에 착장했을 때 부드럽고 우아한 유동성의 미감을 전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3) 응축에 의한 공간성과 평면성

로농의 플리츠 기법의 조형성 중, 응축에 의해 유발되는 미적 특성은 공간성과 평면성이다. 부피를 갖는 조형물이 고밀도로 압축되기 위해서는 접기라는 조형적 기법이 필요하다.³⁰⁾ 플리츠는 접기를 통해 평면적인 직물에 깊이와 입체감, 부피감을 더한다.

특히 로농은 꽃다발과 같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핸드플리츠로 유명한데 <작품 2>와 같이 요철이 심한 플리츠는 그 자체로 공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인체에 착장했을 때는 인체와 인체가 속해 있는 환경과의 공간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 7>에서도 플리츠의 요철에 따라 표면에 입체감과 공간감이 더해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플리츠의 디자인과 종류에 따라 직물의 평면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작품 8>에서는 플리츠의 디자인에 따라 주름이 한쪽 방향으로 접혀서 직물이 평평하게 늘린 상태가 되므로 평면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6>은 실크쉬폰 소재를 사용하여 다른 플리츠에 비해 주름의 형태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체에 착장했을 때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주름이 퍼지면서 공간

감이 사라지고 선이 강조되어 평면성이 부각됨을 관찰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13 파리 마스터 클래스의 작품을 통해 파리 오트 쿠튀르의 대표적인 플리츠 공방인 로봉의 수공예 플리츠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플리츠 기법의 조형성은 반복, 견고, 응축이며 이에 따른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봉의 핸드플리츠를 활용한 디자인에서 플리츠의 반복에 의한 미적 특성은 통일성과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반복은 패션 디자인 원리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직물 전체에 사용하여 통일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체에 착장하면 방향성을 강조하게 되며 감정을 유발한다.

둘째, 로봉의 핸드플리츠에 의한 패션디자인에서 플리츠의 정서적 조형성인 견고에 의해 나타난 미적 특성은 규범성과 유동성이다. 대개 플리츠의 형태는 직선적인 형태를 띠며, 이는 직물의 드레이프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로봉의 핸드플리츠는 철저한 규칙에 의해 제작되므로 형태에 안정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엄격한 규범성의 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꽃다발로 지칭되는 로봉의 섬세한 플리츠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착장했을 때 움직임과 함께 유동성의 미적 특성을 보여준다.

셋째, 로봉의 플리츠 기법의 조형성 중, 응축에 의해 유발되는 미적 특성은 공간성과 평면성이다. 플리츠는 접기를 통해 직물의 부피가 고밀도로 압축된 것이다. 플리츠는 이러한 접기를 통해 2차원의 직물에 깊이와 입체감, 부피감을 더함과 동시에 마치 종이와 같은 단면을 연출하여 오히려 평면성을 강조하게 된다.

로봉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도출된 미

적 특성은 로봉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핸드 플리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량생산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로봉의 창조적인 디자인의 플리츠로 인해 새로운 실루엣을 비롯한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기법이야말로 새로운 패션디자인에 대한 가능성, 상품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My main aim has been to bring a sense of reality back to haute couture (2013. 7. 1) retrieved 2013. 10. 12. <http://m.dior.com/usa/en/fashion-&-accessories-woman-haute-couturethe-inspiration>
- 2) Brief History of Haute Couture. retrieved 2013. 10. 12. <http://fashion-era.com>
- 3) 김다혜 (2013. 10).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싱글즈, 자료검색일 2013. 10. 12.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27&contents_id=38737
- 4) 이민선 (2013). 패션디자이너의 창의성 발현요인 비교 연구: 칙센트미하이와 가드너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74.
- 5) Chanel Couture AW 13 (2013. 7. 3). retrieved 2013. 10. 12. <http://www.dazeddigital.com>
- 6) 김지영 (2004). 표면장식에 의한 의상디자인 연구-봉제기법에 의한 입체적 표면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6.
- 7) 표준어 국어 대사전(검색어 : 주름). 자료검색일 2013. 10. 12. <http://stdweb2.korean.go.kr>
- 8) C. M. Calasibetta (2003). 박기완 옮김 (2006). 페어차일드 패션 대사전, 부산: 노라노, p.89.
- 9) 이혜영, 김경희 (2006). 주름 장식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분석 및 제작, 한복문화학회, 9(3). p.124.
- 10) 고경남 (2006).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20.
- 11) 이혜영, 김경희. 앞의 책, p.20.
- 12) 이은경 (1991). 복식에 표현된 'Pleats design'연구: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0.
- 13) 이유경 (1994).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플리츠와 리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10.
- 14) 신윤미 (1997). 복식 디자인에 표현된 주름에 관한

-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0.
- 15) 손영미, 이수현 (2004). 플리즈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해체주의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54(6), p.153-168.
 - 16) 김지영. 앞의 책.
 - 17) 고경남. 앞의 책.
 - 18) 김경희 (2008). 플리즈스커트의 플리즈 수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0.
 - 19) S. Tao (2012).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플리즈 디자인의 특성: 2009년 F/W부터 2012년 S/S까지 패션 컬렉션지에 나타난 밀라노, 파리, 뉴욕 컬렉션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23.
 - 20) C. M. Calasibetta (2003). 박기완 옮김 (2006). 앞의 책, pp.85-90.
 - 21) 금기숙, 김민자 (1999). 패션 큰 사전, 서울: 교문사, p.205, 22, 52, 122, 170, 175, 227, 307, 359, 398, 421, 422, 429, 454, 487, 558, 599, 601, 617, 643.
 - 22) 권은영 (2003). 현대 텍스타일의 주름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9.
 - 23)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서울: 교문사, p.147.
 - 24) 김민자. 앞의 책, p.150.
 - 25) 임지아 (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첩 기법의 유형과 미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2.
 - 26) Claudine Ivary aux Ateliers Gérard Lognon (2013. 7. 3) retrieved 2013. 10. 12. <http://www.youtube.com/watch?v=I5uAuH4k1qc>
 - 27) 아트 오브 패션(arts of fashion foundation)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패션교육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 28) 임지아. 앞의 책, p.123.
 - 29) 임지아. 앞의 책, p.59.
 - 30) 이윤경 (2009).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 패러다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Development Applying Paris Haute-Couture Pleat Techniques

- Based on a Collaboration with Atelier Lognon -

Choi, Sun You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on 8 pieces of design works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Atelier Lognon, an Haute Couture pleat workshop located in Pari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visual attributes of pleats and how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leats have been expressed. In addition, this study is aimed at offering new ideas for developing fresh fashion design with high added values. This study is also aimed at promoting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handicraft skills and inheriting and developing them in the modern context. This study reveals that the visual attributes of pleats are characterized as 'repetition', 'solidness', and 'condensation', which lead to the follow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unity and direction'; 'norms and dynamics'; 'spatiality and flatness'.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original techniques of pleats created through traditional handicraft methods have contributed to fashion design development and research.

Key words: Paris haute-couture, Atelier Lognon, hand pleats, fashion design development

